

합종연횡 본격 시작... 현역들 초긴장

“탈락후보 잡아라” 표심 흡수 총력전 잇단 지지선언...경선판도 최대변수

4·11 총선 민주당합당 광주·전남 지역 경선 후보가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와 경선에 진출한 후보 간 합종연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컷오프로 탈락한 후보의 선거인단을 흡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일부 탈락 후보들은 현역 국회의원과 맞서는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경선의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6일 민주당합당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주·전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의 표심이 경선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 가운데 탈락 예비후보의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부분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박빙의 본 경선에서 탈락 후보들이 모집한 선거인단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를 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경선후보들은 탈락 후보를 흡수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이미 합종연횡이 가시화된 지역구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일부 선거구에서 탈락 후보 대부분이 현역 국회의원과 맞서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광주에서 가장 치열한 경선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광주 광산 갑의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이정남 전 광주시의원이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은 6일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전갑길 후보를 대안으로 삼기로 했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김동철 국회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시의원의 지지선언은 향후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북 갑 경선에 나섰다 고배를 마신 임현모 전 광주교대 총장도 경선 후보로 선정된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지하고 나서 경선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민의 변화 요구와 열망을 실현하고자 후보 간 사전 단일화 약속이 있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이형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선에서 탈락한 김경진 변호사도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을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역인 강기정 국회의원의 고전이 예상된다. 앞서 이 전 비서관과 김 변호사, 임 전 총장은 현역인 강기정 의원에 맞서 단일화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유재갑 예비후보도 본 경선에 진출한 박광운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윤 후보는 “본 경선 진출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합의 정신을 살려 박 후보가 공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선거구에서도 공천 탈락자들이 경선 후보와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선거구의 경우 탈락 후보들이 경선에 진출한 특정후보를 지지할 경우 판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라며 “경선이 임박하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은 더 활발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지의 봄맞이

낮 최고 기온이 9도까지 오르는 등 봄기운이 완연한 6일, 모내기를 앞둔 나주시 산포면 들녘에서 한 농부가 트랙터로 논을 갈고 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검붉은 대지가 트랙터 쟁기날에 갈려 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모습이 성큼 다가온 봄을 실감케 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 공천 후폭풍... 무소속 출마 쓰나미

김영진·조영택·최인기 의원 등 재심 청구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 등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 탈락자들은 ‘편파 공천·불공정 공천’이라고 주장하면서 당 지도부를 강력 비판했다.

김재균 의원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원칙과 기준을 저버리고 특정세력에 의한 특정세력을 위한 공천심사를 자행했다”며 “잘못 가고 있는 민주당을 바로잡기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또 “비리의 당사자인 임종석 사무총장, 이화영, 이부영 전 의원은 단수와 경선후보로 결정됐다”

“제 배우자의 구속이 정치적 음해와 권력차원의 표적수사에 의한 것인데도, 유독 저에 대해서는 연좌제를 적용해 공천을 배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의원도 이날 민주당 전남도 당에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전형적인 코드·밀실 공천”이라며 “재심 청구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화 후보도 성명서를 통해 “공심위가 친노 등 특정세력의 정치적 각본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유력한 호남 정치인을 공천 화살했다”며 “이는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라고 비판했다.

이은 순천시장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공천심사를 비난하며 무소속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이들은 당 공심위의 공천 결정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한 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일 태세여서 이번 총선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진, 조영택, 최인기, 강봉균, 신건 등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은 이날 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중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알림

현지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 영어 배워요
여름방학 뉴질랜드 스쿨링캠프



지난 1월 겨울방학기간에 실시된 3회 연수에 참가한 광주 윤리중 3년 나재환군과 뉴질랜드 홈스테이 가족.

뉴질랜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정규수업을 함께 받는 정통영어 어학연수인 ‘제4회 여름방학 뉴질랜드 스쿨링캠프’에 글로벌시대 꿈나무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일보사는 뉴질랜드의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류센터와 공동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4회째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타사의 해외기숙형 과외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에서 매일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방과 후에는 매일 2시간씩 1:1, 5:1, 10:10 수업을 통해 영어향상에 도움이 되는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뿐만 아니라, 한국 교과목인 수학 과학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 연수에서는 엄선된 현지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영어권 문화와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부모님과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한뉴문화교류센터
- 연수학교 :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6개 초·중학교
- 연수기간 : 7월 25일부터 8월 21일(4주)
- 신청마감 : 3월 23일 까지 선착순 50명
- 연수금액 : 498만원 (개인용돈, 광주~인천공항 교통비 불포함)
- 문의 : (062)220-0555, 018-693-6604

光州日報社

민주 총선후보 경선 광주 12일·전남 14일

민주당합당 4·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광주는 12일, 전남은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6일 민주당합당에 따르면 현재 경선이 보류된 광주 서구 갑과 단수 후보지역인 광산 을, 무공천 지역인 동구를 제외한 광주 5

개 선거구의 선거인단 모바일투표가 10~11일에 시행되며, 12일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전남에 따르면 현재 경선이 보류된 광주 서구 갑과 단수 후보지역인 광산 을, 무공천 지역인 동구를 제외한 광주 5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5 Point Whitening

피부 속 빛의 길을 열어 5Point를 밝히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피부 속 빛의 길이 막히면 얼굴빛이 칙칙해지죠. 속부터 맑고 환한 피부를 원한다면 더욱 진화된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을 만나세요. 헤라의 바이오 기술이 빛의 길을 열어 5Point를 생생하게 밝혀줍니다. 마치 피부 속에 5개의 조명을 탁 کن 것처럼.

5 Point Whitening이란?
제대로 된 화이트닝의 증거로서 이마, 양볼, 콧등, 턱 5군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영광입니다.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NEW
미백기능성
주름개선기능성
식용색소안전성

지금 헤라 페이스북에서 당신의 빛을 찾아보세요
www.facebook.com/hera.kr

HERA

· 유통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